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17(금) ~ 2023.02.23(목)

제공일시 2023 03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02.17(금) ~ 2023.02.23(목)

제공일시 2023 03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美 반도체지원법, 투자금 260조 몰려...기업에 득될까 득될까

-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 신청이 곧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이 법의 목표대로 미국이 세계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시설 투자를 빨아들이고 있음
- 2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자료를 인용해, 이미 발표된 미국 현지생산 관련 신규 투자 프로젝트만 40여 개, 관련 투자계획 금액이 2천억달러(약 259조원) 가까이에 이른다고 보도했음
- 이런 가운데 반도체법 보조금을 놓고 미국 각 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반도체법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나왔음
-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들은 반도체법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을 1%도 안 되게 올리는 효과가 있을 뿐이며,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은 대만보다 비용이 44% 더 든다고 지적했음

(한국경제TV, 2023.02.23) 박근아 기자

2. 탄소제거 기업들, 미국 정부에 정책 로비그룹 발족

- 탄소제거 산업에 종사하는 20개 이상 기업들이 이 초기기술 상용화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위해 미 정보에 로비를 벌일 연합을 출범시켰음
- CRA는 탄소제거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탄소제거 프로젝트 크레딧 구매자, 이 분야개발을 지원하는 단체 등을 대표해 정책 논의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낼 예정임
- 탄소제거 NGO인 Carbon 180의 설립자인 Biana Amador가 CRA를 이끌고, 회원사에는 DAC기업인 Sustaera, Climeworks, Hearloom 등이 포함됨
- DAC 기술은 변두리 아이디어로 여겨져왔지만, 연방인프라법안과 IRA 저감법이 통과된 후 투자자들이 이 분야 수백만달러를 쏟아붓고 있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Reuters, 2023.02.23) Valeri Volcovici 기자

3. 대만 '기후변화대응법' 명문화...태양광 2050년까지 최대 80GW 추가 설치

- 대만이 기존의 '온실가스감량관리법'을 전면 개정한 법률인 '기후변화대응법'을 통과시키며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조문에 명시했음
- 이에 태양광 신규 설치가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최대 80GW까지 설치될 계획임 탄소세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탄소요금 제도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됐으며 적용대상, 효율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마련 후, 빠르면 2024년부터 제도가 본격 실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첫 단계는 연간 탄소 배출량이 2만5000t을 넘는 철강, 반도체, 시멘트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287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KOTRA 대만 타이베이 유기자 무역관은 탄소중립의 근거법령이 완성되고 정책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만 산업·시장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음

(인더스트리뉴스, 2023.02.21) 권선형 기자

1. BNP는 화석연료 자금조달, 토탈에너지는 인권문제로 소송당해

- NGO 활동가들이 프랑스 최대 기업 2곳을 화석연료 자금조달과 인권유린 혐의로 두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음
- 토탈에너지의 경우 최대주주인 예맨 LNG가 운영하는 발하프 가스 액상화 플랜트에서 UAE군을 억류, 고문했다는 이유 때문임
- 또 BNP파리바는 2025년까지 화석연료 프로젝트 비중을 1/4로 줄인다고 주장한 반면에, 200개 이상의 새로운 화석연료프로젝트 관여한 이유로 소송을 당했음
- 2건의 소송은 모두 프랑스 법을 근거로 파리 법원에 제기돼 있으며, 첫번째 판결은 이번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음

(Reuters, 2023.02.24) Mathieu Rosemain, America Hernandez 기자

2. H&M, 패션 재활용인프라 구축 조인트벤처 출범

- H&M그룹과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회사 리몬디스(Remondis)는 유럽에서 중고 및 불필요한 의류와 직물을 수거하고 분류하는 인프라 및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합작법인 '루퍼(Looper)'를 출범한다고 발표했음
- H&M은 2013년 패션회사 최초로 글로벌 의류수집 이니셔티브를 확립하고, 투자부문을 통해 재활용 기술기업에 투자해왔음
- H&M에 따르면 EU 헌옷의 60%가 폐기되는데, 루퍼는 의류 수거와 분류를 통해 재활용 기업에 원료를 제공할 예정임
- 루퍼는 새로운 수거 계획을 테스트하고 자동 분류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섬유 수거 및 분류 내에서 혁신을 이룰 계획이며 2023년 동안 약 4000만벌의 의류 제공을 목표로 함

(ESG Today, 2023.02.17) Mark Segal 기자

3. “밥도 먹고 전기차도 충전하고”...美 ‘충전 패스트푸드점’ 뜬다

- 미국 패스트푸드 체인을 중심으로 음식만 파는데 그치지 않고 전기차 충전소를 부대시설로 갖추는 영업 방식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미국 외식업계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로 부상하고 있음
- 21일(현지시간) 일렉트릭 등 외신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 기업 가운데 영업 매장에 전기차 충전소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곳은 글로벌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와 미국 최대 멕시코음식 프랜차이즈 타코벨임
- 전기차 보급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영업점에 전기차 충전소를 부대시설로 갖춰 전기차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끌어안겠다는 전략임
- 써브웨이는 올해부터 미국 내 일부 매장에 급속 충전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타코벨은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충전소 매장을 120곳까지 늘려간다는 계획임

(글로벌이코노믹, 2023.02.22) 김현철 기자

1. '혁신형 SMR' 기술개발 본격 착수...4000억 투자/ 대형 원전 '아킬레스건' 없앤 SMR ... 韓, 美·中 넘어설 기회

- 올해부터 4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임
-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은 17일, i-SMR 개발에 참여 의사가 있는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올해 시행 연구과제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음
- 지난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i-SMR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는 SMR을 개발해 2028년에 표준설계인가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이번 공청회는 i-SMR의 전반적인 설계 특성 및 사업계획, 올해 과제제안요청서 및 기술개요서가 공고 되는 16개 과제들에 대한 설명, 질의답변으로 진행됐음

(뉴스스, 2023.02.17) 임소현 기자
(매일경제, 2023.02.19) 성승훈 기자

2. 세계 최초 전기차 등급제 도입...아이오닉6 '1등급' 받을 듯

- 전기차의 에너지 소비효율에 따라 1~5등급의 기준을 매겨 표시하도록 한 전기차 소비효율 등급제가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도입될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전기차에 1~5등급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기준을 신설해 부여하는 내용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3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음
- 정부는 시장에 판매되는 차종 간 효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1~5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해 표시하기로 했음
- 한편, 정부는 등급 별 구체적인 차종은 현재 단계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침이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임
-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 아이오닉6, 아이오닉5, 테슬라 모델3 등 1회충전주행거리가 긴 모델들이 1등급 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한국경제, 2023.02.22) 김소현 기자

3. 전경련, 환경연 글로벌 싱크탱크로 육성 등 뉴웨이 선언 발표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2년 만에 새 수장을 맞았음 전경련은 23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미래발전위원장 겸 회장 직무대행으로 추대했음
- 2011년부터 전경련을 이끌어온 허창수 회장은 12년 만에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음
- 전경련은 이날 중장기 발전안과 뉴웨이 선언을 발표했음 대·중소기업 상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경련에 대·중소상생위원회를 설립하고 중소기업 경영자문사업 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구체화해나갈 계획임
- 또 전경련은 또,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국제적 수준의 싱크탱크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회장단 등 주요 그룹 회장들로 구성된 글로벌 이슈 협의체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설립도 검토하고 있음

(조선일보, 2023.02.23) 신은진 기자

1. SK이노 성과급, ESG 평가로 준다…0~800% 차등 지급

-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재무 성과가 아닌 자사의 ‘올 타임 넷제로(All Time Net Zero)’, 기업가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목표치 달성 수준에 따라 0~800%까지 자회사의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과급 체계를 개편할 계획임
- SK이노베이션은 그간 재무적 성과 위주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해왔음 앞으로는 3년 단위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계열사별 성과급을 0~800%까지 차등 지급함
- 평가 기준에서 재무 성과는 빠지고, 대신 기업가치 향상, ESG, 올 타임 넷제로 등이 포함됨
- 새로운 성과급 체계에서 저조한 성과를 낼 경우 성과급이 ‘제로’일 가능성도 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설명했다

(뉴스1, 2023.02.20) 한재준 기자

2. 포스코, 6천억 투입해 ‘전기로’ 신설…“탄소 배출 75% 줄여”

- 포스코가 탄소중립 철강 생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했음
- 포스코는 20일 열린 이사회에서 6천억원을 투자, 광양제철소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으며, 내년 1월 착공해 2026년 가동에 들어갈 계획임
- 전기로 쇳물은 고로 쇳물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만, 탄소배출량은 75%까지 줄어드는데, 그동안 고로 방식으로만 쇳물을 생산해온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이 기술 상용화 전 중간 단계로 전기로를 택한 것임
- 다만 전기로 방식은 전기를 많이 쓴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는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구매계약(PPA)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음

(한겨레, 2023.02.21) 안태호 기자

3. 롯데·SK케미칼, 새 먹거리 ‘플라스틱 재활용’ 선점 경쟁 불꽃

- SK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ESG 열풍에 힘입어, 고부가가치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상업생산에 속도를 내고 있음
- 특히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식품용기로도 쓰일 수 있는 최첨단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앞세워 경기 침체에 따른 화학업계의 불황을 극복할 돌파구로 마련한다는 전략임
- SK케미칼은 풀림P&P와 화학적 재활용 소재의 식품 용기 양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상업생산 준비를 완료할 계획임
- 롯데케미칼 역시 울산공장에서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의 시범 생산에 성공했음

(디지털타임즈, 2023.02.23) 박한나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02.17(금) ~ 2023.02.23(목)

제공일시 2023 03 03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U, 녹색 경제 위해 주요 원자재 공급 부족 대비에 나서

-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 EU는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중국에의 의존을 점점 더 경계하고 있다고 유랙티브가 27일(현지시각) 전함. 힐데가드 벤텔(Hildegard Bentele) EU의원은 "중국의 대만 공격과 잠재적인 후속 제재 및 공급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힘
- 유럽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의 성공에 중요한 원자재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은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희토류 공급의 86%를 전세계에 제공하고 있음. 벤텔 의원은 유랙티브가 주최한 행사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우리는 이 순간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는 제재가 있거나 수출 금지가 있을 수 있는 순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 유럽의 중요한 원자재 전략 보고관 역할을 한 벤텔 의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당시 공급 부족은 EU 차원에서 공급망의 위험 평가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음. 벤텔 의원은 "우리는 앞으로 1~2년 동안만이 아니라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세계은행에 따르면, 녹색 산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2050년까지 중요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500%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녹색 경제는 특히 원자재 집약적임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집약 산업 정책 책임자인 티타스 아누슈케비치우스(Titas Anuškevičius)는 유랙티브 행사에서 "우리는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원자재 집약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더 많은 풍력 터빈, 더 많은 태양 전지판,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필요할 것이며, 그것들 모두를 생산하기 위해 모든 종류의 원자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덧붙임
- EU는 3월 비민주적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유럽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료법(Critical Raw Material Act)을 제출할 계획임. 그러나 중요한 원자재의 채굴에 관한 한 가능성은 제한적임
- 마크 미스트리(Mark Mistry) 니켈연구소 수석 공공정책 매니저는 "우리는 유럽의 지질을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가 1차 원자재로 유럽 내 공급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일부 원자재가 있을 수는 있다"고 강조함. 미스트리 매니저는 서로 다른 노력을 결합할 것을 제안했음. 채굴과 재활용 다음으로 무역 파트너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 EU가 중국을 따라잡기에 좋은 위치에 있는 또 다른 분야도 있기 때문임. 중국은 이 물질들을 채굴할 때 준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도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 세계 리튬의 약 9%만이 중국에서 채굴되지만, 약 60%는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음
- NGO 운송 및 환경(T&E)의 줄리아 폴리스카노바(Julia Poliscanova) 선임 이사는 "EU는 특히 중요한 원자재의 정제와 추가 처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함. "중국은 모든 금속을 채굴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채굴된 원자재를 가공하려고 중국으로 보낸다"며, "유럽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우리는 광업 초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든 추출을 할 수 없다"고 덧붙임
- T&E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경우 유럽 내에서 리튬 수요의 절반 이상을 정제할 수 있다고 함
- 한편, 우리 나라도 핵심 광물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섬. 우리 정부는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현재 80% 이상인 리튬, 코발트, 흑연 등의 중국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대로 낮춘다고 발표함. 또한, 이를 위해 해외자원 개발 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30개 자원보유국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인팩트는, 2023.3.2) 홍명표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차전지 양극재 소재인 수산화리튬은 84%, 수산화코발트는 69%, 천연흑연은 72%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이는 핵심광물의 처리·가공 공정이 중국에서 대부분 이뤄지고 있기 때문임